

2004 서울국제식품전

4월 ~ 4.22 목



2004 서울국제식품전

국내외 식품 사업의 모든 것이 한눈에!

올해로 22회를 맞은 서울국제식품전은 많은 식품 업체들이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국내 업체뿐 아니라 해외업체에서도 활발한 참가를 보여 명실공히 국내 최대 식품 전시회로 자리매김한 서울국제식품전을 둘러봤다.

글 / 사진 · 김영주

2004 서울국제식품전(SEOUL FOOD 2004)이 지난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코엑스 태평양·대서양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한국공업협회(KFIA)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식품, 음료, 주류, 식품가공, 식품기계 등 식품 관련 분야를 총망라하는 식품전문 전시회로 올해 22번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국내 326개 업체와 대만, 일본, 미국, 스페인, 중국, 이탈리아 등 해외 34개 국 149개 업체가 참여해 지난해보다 180개가 늘어난 475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번 서울국제식품전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이었다. 산업 전반에 중요한 아이콘으로 등장한 '웰빙 열풍'이 서울국제식품전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났다. 전시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건강, 유기농 관련 식품이나 친환경 소재로 만든 포장재, 위생성을 강조한 기계류 등을 주로 선보였다.

홍삼, 인삼, 석류, 유기농 채소류, 장미 음료 등 건강식품과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커피,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 음료 관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다양한 시식 행사를 준비해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특히 해외 업체에서 선보인 치즈, 와인 등을 비롯한 각종 해외 식재료가 관람객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제과제빵 관련 업체들은 20여 개 업체가 참여해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전시회에 제과기계공업협

회 차원의 공동 부스를 마련한 국내 제과기계업체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과기계와 각종 소도구를 전시했다. 많은 전시용품 가운데 갖가지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묶은 콤비제품들이 주류를 이루어 새로운 트렌드를 알려주는 자리였다. 제과 재료 업체는 베이크플러스, 유니온무역상사, 동아제분 등이 참여해 건강에 좋은 기능성 제품을 위주로 홍보에 주력했다.

서울국제식품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박람회연맹(UFI)의 국제인증을 따낸 식품 전시회로 내년부터는 일산 한국국제전시장(KINTEX)으로 옮겨 국내 최대 식품 관련 비즈니스 전문전시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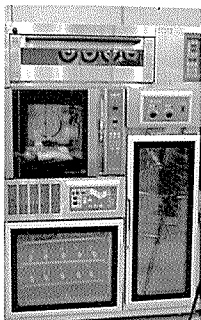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성숙해지는 전시회 운영과 국내외를 망라한 참여 업체의 증가로 식품 전시회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국제식품전은 식품에 관한 국내외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실공히 국내 최대 전문 전시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㉞



다양한 시식행사가 열려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제과관련 참가 업체 들여다보기

제과기계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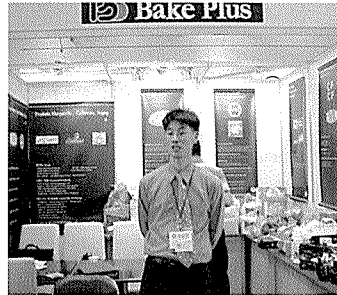


대흥기업에서 새롭게 선보인 콤비오븐

제과기계업체들은 지난해에 이어 공동 부스를 마련해 대영제과기계공업(주), 대우공업사, 대흥기업, 서일공업사, 영송기계공업사, 우정공업, 진원기계, 한영기업 등이 참여했다. 대영제과기계공업(주)은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초이스콤비 스팀오븐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 제품은 음식물의 건조 없이 조리 가능하고 음식의 변형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우정공업은 적외선을 방사해 살균 효과와 냄새 제거가 뛰어난 테크 오븐을 홍보했다. 대우공업사는 벨기에산 초콜릿 몰드를, 서일공업사는 국내 최초로 피카츄나 종 모양의 소형 공예 몰드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대흥기업과 한영기업은 여러 기능이 하나로 묶인 콤비 오븐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이 제품은 오븐, 도우콘, 발효기 등의 기능이 하나의 기계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소규모 점포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과재료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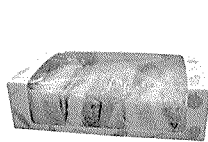
제과재료업체는 길림양행, 다림너츠빌, 동아제분, 베이크플러스, 유니온무역상사 등이 참여해 자사 제품을 홍보했다. 길림양행과 다림너츠빌은 건강에 좋은 견과류의 이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특히 다림너츠빌은 새로운 건강 음료 프룬 주스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베이크플러스는 유기농 밀가루와 발로나 초콜릿 제품들을 선보였다. 유니온무역상사는 아체가 들어있는 건강빵 프리믹스 '이지 배지'와 천연 사워도우 '아이디'를 집중 홍보했다. 최근 메일 공장을 새롭게 준공한 동아제분은 다양한 메일 제품과 RS 프리믹스, 통합 브랜드로 출시한 맥선 밀가루를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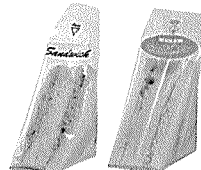
포장업체



케이크를 깔끔하게 진열할 수 있는 도자기 접시



양지디자인포장에서 선보인 종이 샌드위치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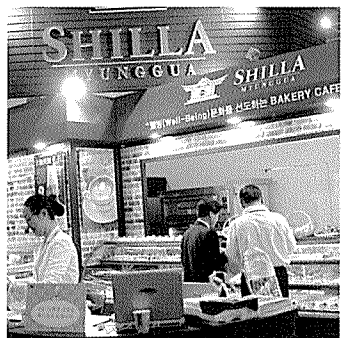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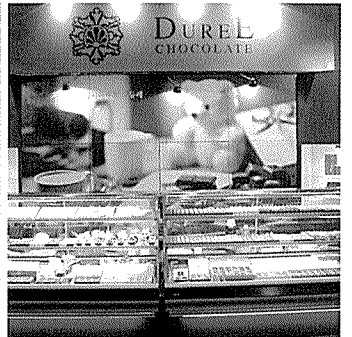


OPP필름으로 제작된 새로운 포장의 새로운 샌드위치 용기

포장업체는 새포장과 양지디자인포장이 참여해 1회용품 사용규제를 대비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든 포장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새포장은 OPP필름 소재로 된 샌드위치 포장재로 오랜 시간 보관해도 습기가 차지 않아 내용물이 잘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양지디자인포장은 종이와 필름을 혼합해 내용이 잘 보이면서 형태를 잡아주는 제품과 케이크를 쇼케이스에 전시할 때 사용하는 도자기로 만든 접시를 함께 선보였다.

기타 업체



대두식품, 듀레초콜릿, 미니미화과자, 브레드가든, 신라명과 등이 참여해 제품 홍보에 주력했다. 대두식품은 다양한 양곡과 여름철을 대비한 팥빙수 재료들을 미리 전시하고 듀레초콜릿과 미니미화과자는 선물용 제품을 홍보했다. 특히 듀레초콜릿은 맞춤 제작 제품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브레드가든과 신라명과는 각각 유기농 제품과 저온 숙성빵이라는 특징을 강조해 건강 소재제품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